



성공한 남자일수록 ‘음욕의 눈’을 경계하라

최효찬
칼럼니스트



1821년 7월, 열아홉 살의 어느 시인이 자신의 연인 아델 푸세에게 구혼하기 위해 파리를 출발해 걷기 시작했다. 장래가 없는 시인과의 결혼을 반대하던 그녀의 부모는 어느 때처럼 파리 근처에서 여름 별장을 빌린다면 그가 찾아와 휴가를 망쳐놓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파리에서 좀 떨어진 드뢰(Dreux)에 별장을 빌렸다. 드뢰는 파리 서쪽에서 96킬로미터 떨어진 유서 깊은 소읍으로 노르망디로 향하는 길목에 있다. 그렇게 멀리까지 역마차를 타고 가려면 당시 비용으로 25프랑이 들었다. 그녀의 부모는 그에게 그만한 돈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튼튼한 다리가 있었다. 그녀와 그녀의 부모는 7월 15일에 파리를 떠났고, 그는 그들의 뒤를 따라 16일에 파리를 떠났다. 그는 사흘 만인 19일에 드뢰에 도착해 20일에 그녀의 부모로부터 결혼승낙을 받았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열혈 청년은 이후 프랑스의 대문호로 떠오른 빅토르 위고(1802~1885)다. 역사가 유진 웨버는 젊은 시절의 빅토르 위고가 사랑에 빠져 먼 거리를 걸어갔던 일을 이같이 묘사했다. 빅토르 위고는 29살(1831)에 소설 ‘파리의 노트르담’을 발표해 작가로 명성을 확고히 했다. 그녀의 부모가 장래가 없다고 멸시한 지 정확히 10년 후의 일이었다. 어쩌면 이들 부부는 사위감을 보는 눈이 ‘까막눈’이었나 보다.

빅토르 위고는 드뢰에서 결혼승낙을 받고 2년 후 아델 푸세와 결혼에 골인한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소꿉친구였는데 당초 형의 애인이었다. 형은 동생에게 애인을 빼앗기자 그만 미쳐 버리고 말았다.

그렇다면 이들의 결혼생활은 행복했을까? 결혼 9년째, 빅토르 위고가 명성을 날릴 즈음 부인 아델 푸세가 먼저 바람을 피운다. 외도 상대는 빅토르 위고의 작품을 비평하던 친구이자 평론가인 샤를 생트뵈브였다. 빅토르 위고의 반응은 의외였다.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이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당시 인기 절정의 여배우인 쥘리에트 드루에와 맞바람을 피운다. 이들의 불륜은 쥘리에트 드루에가 여든한 살로 죽는 날까지 지속된다. 그 유명한 ‘장발장’의 원고를 정서하면서 빅토르 위고의 작품 활동도

운 사람도 부인이 아닌 쥘리에트 드루에였다.

그 와중에 빅토르 위고는 화가의 부인과 또 불륜에 빠진다. 서른아홉 되던 해 화가인 프랑수아 비아르의 부인을 보자 그만 매혹되고 만 것이다. 불륜은 4년간 지속되었고 결국 프랑수아 비아르가 고소해 간통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프랑스를 충격에 빠뜨렸다. 비아르 부인은 철창신세를 져야 했지만 그는 귀족원 의원 이어서 수감되는 망신은 피할 수 있었다. 그는 반정부인사로 찍혀 영국 저지 섬에서 망명 생활을 할 때에도 부인과 살면서 쥘리에트 드루에를 이웃에 와서 살게 했다. 이때 그는 쥘리에트 드루에를 옆에 두고도 그녀의 하녀와 관계하기를 더 좋아했다. 당시 나이는 일흔 살이었다. 그는 급기야 며느리와 사위들로부터 손자·손녀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작가는 작품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빅토르 위고만큼 시대정신을 대변하는 이도 드물다. 약자와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녹아 있는 문학작품, 권력에 맞선 항거의 정신은 그를 이상주의적 작가이자 정치인으로 자리 잡게 했다. 지금까지도 프랑스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빅토르 위고는 사실 사생활에서는 존경할 만한 인물은 아닌 셈이다.

빅토르 위고의 둘째 딸 아델 위고도 아버지만큼 열정적인 구애로 유명했다. 아델 위고는 영화 ‘아델 H. 사랑’(1975, 아자벨 아자니 주연)의 실제 주인공이다. 작가적 소질이 있었던 그녀는 영국 여행 중 군인이었던 알버트 핀슨과 사랑에 빠졌다. 그녀는 그가 미국으로 발령 나자 무작정 미국행을 감행한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이미 식은 상태였다. 그녀의 사랑은 집착으로 바뀌었고 결국 정신병에 이르고 만다. “사랑의 달콤함을 맛볼 수 없다면 그 쓴 맛에 나를 바치겠다.” 아델 위고의 이 말은 아버지 빅토르 위고의 ‘왕성한 불륜’과 닮아 있는 것 같다.

빅토르 위고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음욕’에 눈먼 사랑이 아닐까.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든 고위 공직자의 잇단 성추문도 음욕에 눈먼 사랑이다. 모든 남자, 특히 성공한 남자일수록 음욕의 눈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